

제주 미기록 귀화식물 : 향기풀, 미국 담쟁이덩굴, 꽃갈퀴덩굴

양 영 환^{1*} · 송 창 길²

^{1*}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

² 제주대학교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

Three unrecorded species from Jeju : *Anthoxanthum odoratum* L.,
Parthenocissus quinquefolia(L.) Planch., *Sherardia arvensis* L.

Young-Hoan Yang^{1*} · Chang-Khil Song²

^{1*}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, Korea

² Major of Plant Resources & Environment, Cheju National University, Korea

ABSTRACT

Three naturalized species of taxa in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 such *Anthoxanthum odoratum*, *Parthenocissus quinquefolia* and *Sherardia arvensis* have been found. And three index to these species is provided.

Key word : *Anthoxanthum odoratum*, *Parthenocissus quinquefolia*, *Sherardia arvensis*

서 론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귀화식물은 199분 류군(송과 양, 2005)으로 기록보고 되어 있다.

본 조사는 제주에서 아직까지 조사보고 된 바 없는 향기풀[*Anthoxanthum odoratum* L.], 미국 담쟁이덩굴[*Parthenocissus quinquefolia* (L.) Planch.], 꽃갈퀴덩굴[*Sherardia arvensis* L.]의 미기록 귀화식물 3종에 대해 도해와 형태적 특징을

기재보고 한다. 그리고 그림과 그림 표본은 필자가 소유한 표본을 사용하였으며 확정표본은 민속자연사박물관 표본실에 보관하였다.

종의 기재

1. *Anthoxanthum odoratum* L., Sp. Pl. 28 (1753) ; T. B. Lee. Col. Fl. Kor. 498(2006) (Fig. 1)

한국명 : 향기풀(Fig. 1), 영명 : Sweet vernalgrass

벼과(Gramineae) 향기풀속(*Anthoxanthum*)으로 유럽원산이고, 여러해살이풀로서 높이 20~50 cm 이고 향기가 있으며, 꽃줄기가 갈라지지 않는다. 잎은 길이 5~10 cm, 너비 3~6 mm로서 밋밋하고 털이 없는 것과 긴 털이 있는 것이 있으며 잎혀는 난형이고 길이 2~4 mm이다. 꽃은 5~7월에 피고 꽃 이삭은 장타원형으로서 길이 4~7 cm, 너비 7~15 mm이고 가지는 짧고 거칠며 흔히 털이 있다. 작은 이삭은 1개의 꽃으로 되고 포영은 길

이가 같지 않으며 끝이 까락처럼 뾰족하고 주맥 윗부분에 작은 돌기와 더불어 때로는 털이 있으며 곁에 잔점과 1~3맥이 있다(이, 2006; Shimizu *et al.* 2005). 그러나 2006년 6월 13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동목장 등에서 발견된 것은 목초로 재배되었으나 월출한 것으로 생각된다(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, 2006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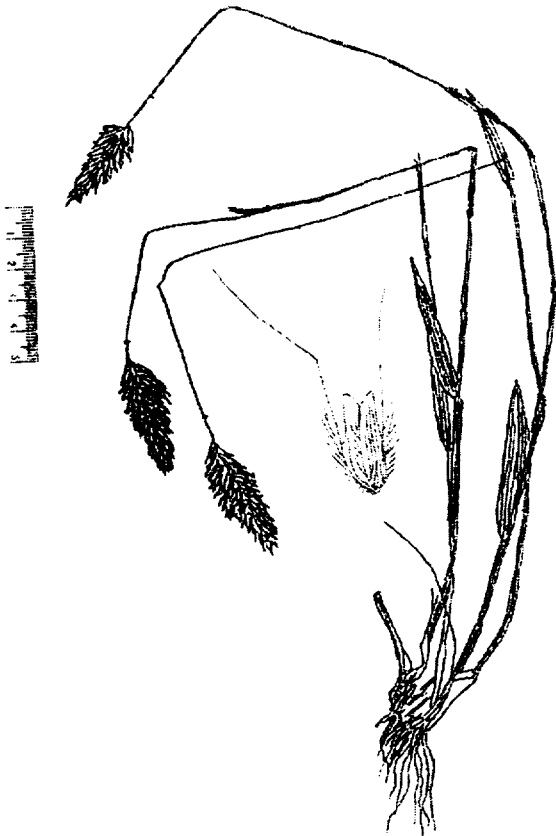


Fig. 1. *Anthoxanthum odoratum* L.

2. *Parthenocissus quinquefolia* (L.) Planch., in DC., Monogr. Phan. 5(2) : 448(1887)

한국명 : 미국담쟁이덩굴(Fig. 2), 영명 : Virginia creeper

포도과(Vitaceae) 담쟁이 덩굴속(*Parthenocissus*)으로 북아메리카원산이고, 여러해살이 낙엽성 덩굴성목본성식물로서 주로 돌담이나 바위 또는 나무줄기에 붙어서 자란다. 원형 혹은 거꿀달걀꼴의 장 타원형의 잎은 3~5개의 소엽이고 5개의 손바

닥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, 잎자루가 있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. 꽃은 원추꽃차례를 이루며 피고, 열매는 어두운 청색이고 2~3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(이, 1996; Shimizu *et al.* 2005). 그러나 2006년 7월 13일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에서 발견된 것은 원예용으로 재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(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, 2006).



Fig. 2. *Parthenocissus quinquefolia* (L.) Planch.

3. *Sherardia arvensis* L., Sp. Pl. 102 (1753)

한국명 : 꽃갈퀴덩굴(Fig. 3), 영명 : Field madder

꼭두서니과(Rubiaceae) *Sherardia*속으로 유럽원산이며 1-2년생 초본이고, 높이 20~80cm까지 자라고, 뿌리는 점차 붉은 색으로 변하고, 잔뿌리에 털이 많다(Shimizu *et al.* 2005). 줄기는 가늘고 사각형에 거친 털이 있으며 포복성이다. 잎의 길이는 0.5~2cm정도이고 6개로 돌아가면서 나있고, 형태는 피침형, 혹은 계란형으로, 끝이 뾰족하다. 꽃은 5~6월에 자주 빛의 핑크색이며 작은 끝머리부분이 측생기부의 포엽보다 훨씬 길게 총포로 닫혀있다. 꽃받침은 6개의 깊은 송곳모양의 지상돌기로 끈게 자라며 꽃이 핀 후에도 자라고, 화관은 길게 늘어진 4개의 잎 모양의 튜브로 이루어진 깔대기 모양이고, 수술은 4개이다. 열매는 거꾸로 세운 계란모양에 약간 거칠고, 3개의 떨어지지 않는 꽃받침돌기와 왕관모양의 2개의 측생

의 암술 잎이 있다(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, 2006). 2003년 월드컵공원(옛 서울 난지도) 조사에 발견된바 있다. 그러나 2006년 5월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당오름 근처 등에서 발견된 것은 목초용 씨앗 혹은 거름에 혼입된 것으로 생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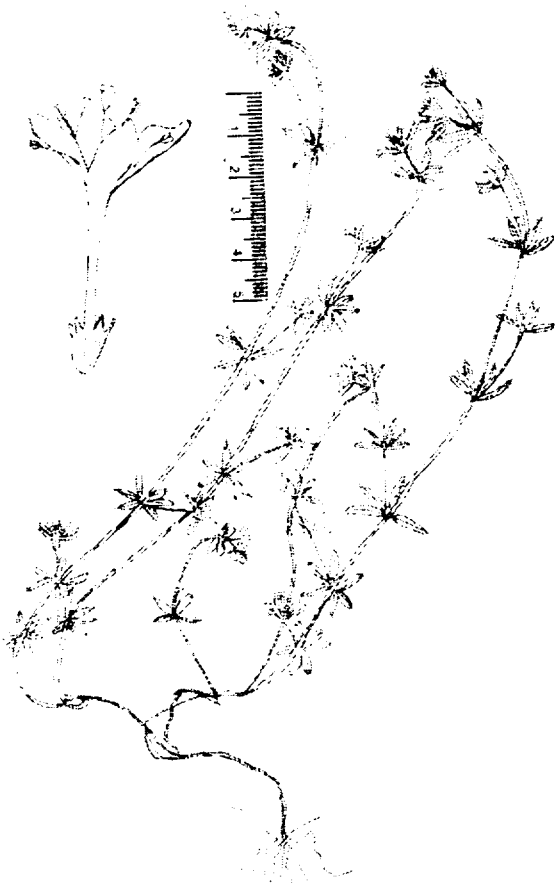


Fig. 3. *Sherardia arvensis* L.

적 요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귀화식물은 199분류군(송과 양, 2005)으로 기록보고 되어 있다.

그러나 근래에 향기풀[*Anthoxanthum odoratum* L.], 미국담쟁이덩굴[*Parthenocissus quinquefolia* (L.) Planch.], 꽃갈퀴덩굴[*Sherardia arvensis* L.]의 미기록 귀화식물 3분류군이 발견되어 보고하는 바이다.

감사의 글

본 연구를 위해 꽃갈퀴덩굴(*Sherardia arvensis* L.)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준 고산초등학교 한봉석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인용문헌

- 박수현. 2003. 월드컵공원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.
- 송창길, 양영환. 2005. 제주도의 귀화식물, 남제주군의제21실천협의회
- 이우철. 1996. 한국식물명고. 아카데미서적
- 이창복. 2006. 원색대한식물도감. 향문사.
-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. 2006. 해로운 외래식물특별전.
- 清水矩宏, 森田弘彦, 廣田伸七. 2005. 日本歸化植物寫眞圖鑑. 全國農村教育協會

